

제8강 : 편중된 심성의 기질(비겁)

비겁의 특징적 구조는 동질성과 경쟁성의 에너지를 근면으로 한다. 따라서 모든 구도에서 일차적으로 힘의 지배적 관계 또는 자기중심적 관계구도를 형성하려는 생리를 지닌다. 때문에 비겁의 생리는 감동과 긴장을 생태적 조건으로 전제하게 된다. 그러므로 긍정적 구도에서는 무엇이든 이를 수 있는 가동성(可動性)을 지니고, 부정적으로는 쟁탈과 악순환, 박탈 또는 공격성으로 발현된다. 비겁 주변 심성의 상호 교감과 상응에 따라 분석은 다양하게 전개된다.

1. 심성의 심리구조

비겁 = 주체적
식상 = 감정적
채성 = 감각적
관성 = 사상적
인성 = 직관적

1) 비견의 심리 ; 내면적 주체성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풍부하면서도 급하게 서두르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강경하게 자신의 주장을 밀고 나간다.

용고집이 될 수 있다. 타협을 하는 재주가 없다. 누군가 자존심에 자극을 주면 감정이 요동을 치게 된다. 자신이 생각한 대로 움직이는데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면 마음이 상한다.

비견 심리의 긍정적인 면을 살펴보면 용감하고 정직하다. 신중하면서도 강건하다. 민첩하고 통솔력이 강하다. 일을 존중하고 많은 사람들이 즐겁도록 한다. 자신을 사랑하고 또 중히 여긴다. 성실하고 담백하다. 하는 일이 공정하고 분명하다. 의리를 밝게 한다. 공익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 널리 좋은 인연을 맺는다. 말과 행동이 동일하다. 진취적이면서 절도가 있다.

(예1) 비견 장점의 사주

辛 戊 壬 戊
酉 寅 戌 戌
54 44 34 24 14 4
戊 丁 丙 乙 甲 癸
辰 卯 寅 丑 子 亥

위 사주는 비견이 강한 사주로 성격이 부드럽고 온화한 중 어떠한 힘든 일이 있어도 굴복하지 않는 주관적인 성격의 소유자이다. 경쟁심이 강하고 항상 긍정적으로 행동하며 매사에 추진력이 강하다. 이 사주의 주인공은 財星 용신으로 주방 인테리어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항상 창조적인 면을 발휘하며 노력하지만, 금전적인 면에 골목이 많은 것은 자아실현의 욕구가 강하여 나타나는 단점이다.

비견 심리의 부정적인 면을 살펴보면 고집쟁이,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맹목적이다. 자신의 사사로움과 이익에 관심을 갖는다. 깊이 않은 견해이면서도 치우쳐 있다. 성급하게 일을 처리한다. 자신이 하는 것은 모두 옳다고 판단한다. 사고방식에 융통성이 없다. 스스로를 지나치게 믿는다. 표현력이 부족하다. 인정머리가 없다.

(예2) 비견 단점의 사주

辛 辛 辛 甲
卯 酉 未 辰

52 42 32 22 12 2
乙 丙 丁 戊 己 庚
丑 寅 卯 辰 巳 午

위 사주는 득령하고 비견이 태과하여 자기 위주의 강한 성격으로 이기적이어서 항상 시어머니와 불화가 끊이지 않던 중 결국 분가하였다. 이 사주의 주인공은 평소 간섭을 싫어하고 작은 시비에도 투쟁을 서슴지 않는 사람이다. 비겁이 태과하면 안정의 욕구에 대한 불만과 실현성성이 부재로 졸렬하며 이기적이고 팽배된 불만을 표출하게 된다.

* 비견의 내면심리가 편재이다.

비견 = 甲寅, 乙卯, 戊辰, 戊戌, 己丑, 己卯, 庚申, 辛酉,

2) 겁재 심리 ; 외향적 주체성

주체성이 강한 녀석이 성공할 확률도 높아진다.

겁재 심리의 긍정적인 면을 살펴보면 적극적이고 진취적이다. 용감하고 과단성이 있다. 강건하다. 민첩하고 효율적이다. 자주적이며 독립적이다.

낙관적으로 생각하면서 또한 열심히 싸우기도 잘한다. 자동적으로 움직이고 부지런하다. 모험을 좋아해서 어려움도 잘 범한다. 용감하게 일을 벌이고 또한 감당을 한다. 교제가 비교적 넓고 활발하다. 열성적인 마음으로 성의를 표한다. 솔직하고 담백하다.

(예1) 겁재 장점의 사주

庚 戊 乙 癸
申 申 丑 丑

60 50 40 30 20 10
辛 庚 己 戊 丁 丙
未 午 巳 辰 卯 寅

위 사주는 戊土 일간이 丑月에 득령하였으나 한 습한 계절로 신약하여 겁재를 용신하고 火運을 기다린다. 사주의 주인공은 주관이 뚜렷하고 마음이 바르며, 직업에 대한 집착 또한 강하고 성실하다. 용신 대운으로 一路하여 남편과 친구, 형제, 부모의 덕이 많다. 한편 남한테 지는 것은 매우 싫어하는 성격이다. 겁재가 용신일 경우 자아욕구가 주는 자신감과 성취하고자 하는 실현성이 고무적인 성향으로 나타난다.

겁재 심리의 부정적인 면을 살펴보면 맹목적으로 밀고 간다. 냉정하게 다투기를 좋아한다. 가까운 것만 보기 때문에 見解(견해)가 얕다. 私事(사사)로운 개인의 이익에 집착한다. 용기가 있는 것은 좋은데 그로인해서 왕왕 무모한 일을 벌이기도 한다. 自暴自棄(자포자기)를 잘한다. 좋아했다가 화를 냈다가 하는 것이 좀 심하다. 말하는 것이 拙劣(졸렬)하다.

스스로 결정하고 혼자 실행하는 면이 있다. 어리석고 무지하다.

(예2) 겁재 단점의 사주

戊 戊 辛 己
午 戌 未 亥

53 43 33 23 13 3
乙 丙 丁 戊 己 庚
丑 寅 卯 辰 巳 午

위 사주는 戊土 일간으로 외형적인 성격은 착하하지만 속내가 이기적이고 자기 위주이며 타인을 무시한다. 月 겁재에 비견이 태과한 군겁쟁재(君劫爭財)의 명으로 도벽심이 많고 재물에 욕심이 지나쳐서 대기업의 과장 자리를 박차고 나와 사업을 하였다. 그러나 결국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사기죄로 형무소에 복역한 사람으로, 형제간에도 채무관계로 원수처럼 지내게 되었다. 겁재가 왕할 때 관성이 없다면 안정의 욕망이 무산되어 잠재의식에서 도덕성이 결여될 수 있다.

* 겁재의 내면 심리는 정재이다.

겁재 = 丙午, 丁巳, 壬子, 癸亥

<* 명리교육과 성격심리>

비견	성격발현의 기지심리	주관과 추진력의 근본 협동과 동지에서 시작
	십성의 강에 의한 성격 심리	자기주장이 강하며 자신을 과신하는 경향이 있고 일에 대한 추진력도 좋음
	십성의 약에 의한 성격 심리	자신감과 자기 존재감이 약하여 양보하고 타인의 의견에 따르는 경향이 있음
겁재	성격발현의 기지심리	애착과 집요한 의지 나와 너의 we-feeling
	십성의 강에 의한 성격 심리	지나친 경쟁심과 승부욕으로 절대 지지 않으려 하며 반드시 성공하고자 노력함
	십성의 약에 의한 성격 심리	경쟁력과 자기 존재감이 부족하며 타인의 의견에 쉽게 동조하는 경향이 있음

(출처 : 김배성. 명리직업상담론. 2009)

2. 부모의 바른 양육태도

1) 비겁이 약할 때는 비겁이 약할 때는 현실도피가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강한 자긍심을 기를 수 있는 기회 또는 특기개발을 위한 기회 제공을 도와야 한다.

양육태도의 방법으로는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자신감을 길러주도록 한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결과물을 만들도록 격려한다. 친구들과 잘 어울리도록 도움을 주고 공동의식을 부여한다.

2) 비겁이 강할 때의 견해는 자기의 주관적 사고에 의하기 때문에 어 | 부 통제나 관여에 반발한다. 개성을 존중하는 범주에서의 유연한 돌려로 진행한다. 따라서 방법으로는 되는 일과 안 되는 일에 대하여 분명한 선을 지킨다. 장점을 살리며 타협하고 양보하는 심성을 길러주며, 지나친 통제보다 칭찬하고 배려하여 인간애를 심어준다.

3. 바른 교육방법

1) 비겁이 약할 때는 주입식 교육보다 객관적인 전개방식의 시청각적 교육으로 접근한다. 스스로 상황에 몰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방법으로 이론보다 행동과 결과를 우선하는 현장학습과 체험학습을 우선적으로 한다. 영웅전 성공전기 등의 서적을 많이 읽게 한다. 약속을 지키도록 유도하며 함께하는 교육체계가 좋다.

2) 비겁이 강할 때는 하고자 하는 일부터 먼저 하도록 관용성을 보인다. 감정과 욕구의 순환을 돕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방법으로는 이해력과 포용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한다. 박애정신을 실천하도록 노력하며, 역사와 전통문화에 관한 교양교육이 필요하다. 개인의 특기를 장점으로 살릴 수 있는 교육이 도움이 된다.

4. 인간관계

1) 비겁이 약할 때는 정서와 사고체계가 불균형 상태이므로 스스로 소외상황 또는 특정인과의 편향적 교우관계를 갖는다. 가족적 분위기에서 자긍심을 일깨워 주도록 한다. 또한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과 의형제를 맺고 협력하는 것을 생활화한다. 독단적 언행을 피하고 대중의 다수 의견에 동참한다. 지킬 수 있는 약속과 지키지 못할 약속을 분명하게 된다.

2) 비겁이 강할 때는 독자적이고 경쟁심이 강하여 상호 화합보다 자기중심형의 독자체계를 추구하므로, 멤버십(member ship) 팀워크(team work)를 강조, 함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방법은 상대를 무시하지 말고 관용과 이해로 남을 포용하도록 한다. 자존심을 앞세우지 말고 충고나 충언을 귀담아 듣는다. 강한 상대를 적대시하지 말고 남도 나를 이해하고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좋다.

5. 직업적성

1) 비겁이 약할 때는 자생력과 지구력이 약하기 때문에 조직체계에 종사하도록 한다. 또한 방법으로는 관리직, 책임자, 사업, 경호 등은 불리하다. 기술직, 역사, 지리, 의학계, 동업, 대리점 등이 좋다. 가급적 대인사업보다 직장생활이나 위탁관리직이 최선이다.

2) 비겁이 강할 때는 지배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독자적 영역을 구축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도록 한다. 그리고 방법으로는 동업, 관공직, 서비스, 명령체계는 부적합하다. 기자, 대리점, 의학, 기술, 관리, 스포츠, 경영 등이 좋다. 개인적인 공간에서 주관적으로 개척하는 직업이 적합하다.

6. 비겁의 강. 약에 의한 판단법

1) 비견이 많고 신강하면

자아 자존심(自尊心)이 강하니 고집이 세다고 한다. 고집이 세다는 것은 남에게 지기 싫어한다는 것이다. 남에게 지기 싫어한다는 것은 승부욕이 강하다는 것이다. 승부욕이 강하다는 것은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 자신 스스로 일을 해내려는 것을 말한다. 직장인에게는 지점이나 대리점, 영업점의 리더가 되려는 기질이 강하여 통제를 받는 것보다 리더를 하려는 기질이 강하다고 보면 된다. 독립심이 강한 것은 구속되거나 남의 지배보다는 내 자유를 먼저 생각하는 자유주의자와 같다.

2) 비견이 많고 신약하면

자아나 주체가 강하나 뜻을 피는 데에는 많은 장애가 따른다. 활동성과 기동성은 뛰어나나 얽매이거나 구속받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인간관계나 조직력은 좋으나 배신이나 구설이 따르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 재물을 취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 군겁쟁재(君劫爭財)의 상이며 재물이 들어오면 몫을 나누니 재물로 인한 갈등과 지출이 따른다. 내가 싫어도 자영업보다는 전문직종인은 월급생활이 오히려 이득이 따른다. 나의 리더십과 단점을 알게 되고 동료애를 바탕으로 안정을 추구하면 좋다. 자영업은 형제, 동료 간 협조를 하게 되거나 서로 협력자가 되어 주면 좋은 일이 생긴다.

3) 비견이 약하고 신강하면

의욕이 상실된 사람은 의욕이 되살아난다. 소심한 사람이 대범해지기 시작한다. 군중과 어울리거나 친목 단체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된다. 적극성을 보이고 활동영역이 넓어진다. 직업이 없던 사람은 직업이 생기거나 취직을 한다. 형제나 부모의 덕은 적으나 자수성가하는 형이다. 처음에는 낮설어하고 늦지만 익숙하면 전문가로 변신한다. 주로 엔지니어나 전문직 도는 앞서서 하는 업(業)보다 활동을 위주로 하는 업이 맞는다.

4) 비견이 약하고 신약하면

나 자신이 의지할 때가 없는 형국이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나 누구 한 사람도 나를 도와주기 어렵다. 내 주체가 약하니 재물이 나에게 머물지 못하고 떠난다.

소심해지고 우울증 도는 의욕이 저하되어 모든 일에 자신감이 적어지니 내 사업보다는 직장이 유리하다. 직장이라 하더라도 전문직이나 자격증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근무가 가능하나 일반 봉급자자는 경쟁이나 진급 등에서 뒤쳐간다. 나를 도와주는 편인, 정인, 또는 비견, 겁재운을 만나야 발복할 수 있다. 매사에 적극성과 자신감을 갖도록 해야 한다.

5) 겁재가 많고 신강할 때

겁재는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승부욕이 강하니 자기 위주의 직업이나 생활을 권장하고 싶다. 상대의 말을 무시하고 오히려 공격을 하는 부정성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남과 타협이나 주위의 권고를 무시한다. 재물에 대한 집착이 크기도 하고 포부도 크다. 식. 재운에서 큰 재물이 들어오고 이성에 관하여 관심이 많다.

독립 사업이나 자영업이 유리하고 체육 분disk 특기생, 예능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도 한다. 직장인인 경우는 대리점, 영업점, 출장소 등 책임감자로 나가려 하거나 프리랜서의 기질이 강한 직종에서 근무를 한다. 경쟁력 있는 부서나 업체에서 두각을 나타내려 한다. 食. 財. 官운에 발복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겁재가 沖. 刑에 해당하면 불리하고 성격이 과격해진다. 학생은 체육 분야, 사관학교, 경찰 분야에도 적합하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나 투기, 도박을 하지 않는 게 좋다.

6) 겁재가 많고 신약할 때

주변에 친구나 동창 또는 동료와 유대 관계를 가지고 정보 활용에 분주해진다. 자기의 힘만 믿고 일을 추진하거나 주위의 추석을 무시하고 일을 벌이면 재물의 손실이 커지고 친구도 잃게 된다. 겁재는 財와 극하니 재물로 인한 근심 걱정이 많게 된다. 미혼자는 결혼에 지장이 생기고 기혼자는 부부간 다툼 논쟁이 잦아진다. 사업자는 변동을 하거나 정리를 하여 규모를 줄이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매매나 문서 변동에서 어려움이 따르거나 일이 지체된다.

겁재가 沖이나 刑이 되면 재물, 문서, 여자로 인하여 고통을 받거나 구설수에 오르내린다. 전문직이나 이류자 또는 전문 직종에서 월급생활자는 편하다. 배신수가 따르니 무모한 투자는 바람직하지 않다.

7) 겁재가 약하나 신강사주일 때

겁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나 겁재가 약하면 자아가 약해지고 주위의 권고를 받아들여려 한다. 전문직인 기술 또는 자격증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食. 財운에 사업을 하거나 신규사업, 창업을 하게 되고 매매, 이동, 변화를 추구하기도 한다. 직장인은 식상운이 오면 직업을 그만두고 신규 사업을 하기도 한다.

재물에 집착을 하거나 이성관계 여자에 대해 관심이 많게 되니 배우자와 불화가 발생한다. 주로 활동성이 강한 업종이거나 내가 직접 일을 하는 것보다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그 배우자가 주로 일을 하는 업을 갖게 된다.

8) 겁재가 약하고 신약사주일 때

처음에 으키욕을 가지고 자기 일이나 직장 일을 하나 시간이 지날수록 한계에 이른다. 직장은 직장 변동이 자주 따르고 머물 곳이 적어진다. 자기 사업자는 사업장을 정리 또는 친구나 동료에게 남겨주어야 하는 일이 생긴다. 매매 시에는 일이 많이 지체되고 자금 압박을 받게 된다.

기혼자는 상대(배우자)가 사회활동에 참여를 하게 되거나 어쩔 수 없이 경제분야를 책임져야 한다. 동업이나 형제 또는 친구와 동업을 하거나 인수, 비겁운이 오도록 기회를 봐야 한다.

겁재(같다. 부정적) 어깨를 나란히 하지만 뜻을 달리한다.

강하면 실천적이고 약하면 참는다.

형제 친구 등으로 강한 경쟁의 대상으로 보며 개인적이다.

겁재는 비견과 비슷하지만 욕심과 경쟁심이 많으며 강하다.

음양(陰陽)은 다르지만 오행(五行)은 같다.

관성은 싫어하고 인성을 그리워하고 식상을 좋아한다. 재성을 보면 미친다.

겁재는 정재(正財)를 극상(剋傷)한다. 정재는 정처 삼촌(三寸) 자산재물(資産財物) 여자는 재물(財物) 시가(媿家) 부귀(富貴)를 말한다.

겁재가 약(弱)하면 무사하나 겁재가 강(強)하면 정재는 몰락한다.

이성이 다른 형제나 친구동료이며 비견과 비슷하지만 부정적(否定的)인 면이 강하게 작용한다. 즉 무례하고 교만하여 흉성(凶星)이 많으며 불화와 이별 그리고 많은 고통이 따른다. 그러므로 화합이 안 되며 동업이나 평등하게 나눈다는 생각은 안하는 것이 좋다.

연월일시의 겁재는 비견과 비슷하지만 좀 더 강(強)하게 작용한다.

겁재는 오행(五行)은 같으나 음양(陰陽)이 다른 것으로 상당히 부정성이 강하며 양(陽)일생이 음(陰)을 만나면 겁재(劫財)라고 하며 탈재(奪財)라고도 하여 적극적으로 피탈(被奪)을 당하고 강제성이 있으며 처와 재물이 쟁탈 당한다.

음(陰)일생이 양(陽)을 만나면 패재(敗財)라고 하는데 재물에 욕심을 내다가 손해(損害)를 보는 것이다. 겁재는 상대적으로 정재(正財)를 극(克)하며 오행 따라서 통변을 달리하여야 한다.

천간으로 분석하여보자.

甲木은 자존심이 강하고 독성 적이다.

乙木은 어울리지 못한다.

丙火는 일방적이며 외면당한다.

丁火는 자기 말이 통하지 않으면 이탈한다.

戊土는 말이 적으며 변화를 싫어하고 둔(鈍)하며,

己土는 개인적 이익이 우선이다.

庚金은 의리보다 실속적이다.

辛金은 통하지 않으면 돌아선다.

壬水는 야심이 강하고 외면상 포용적이다.
癸水는 가슴에 비수(秘邃)가 숨겨져 있다.

인간사에는 친구 자매 이복형제(異腹兄弟) 며느리 시아버지 등등 신명(神命)세계에서는 분석하여 본다면 여자일 경우에는 여(女)신장이나 법사 남자일 경에는 선녀법사 또는 선녀로 본다.
비견처럼 주체성이 강하고 고집과 자기주장 오만불순 교만하며 이중성과투기 사행심이 강하다. 자기가 손해를 보면 즉시중단하며 생각이 깊다.

시기질투 경쟁심 운동선수(개인기) 손해자기위주 선동 강탈도둑 사기 투쟁 단체 보복성 피해의식 정보제공 밑바닥생활 청소 아랫것 신속 과감 투항 기부 욕심 비윤리적이며 강제성과부정적이다.
모든 것을 자기위주로 진행 하고자하는 성격이 남몰래 작용하며 상당히 실속과라서 계산 이르고 손해 본다는 생각이 들면 즉각 중단한다.
강력한 경쟁이 있는 운동이나 오락에서 실력을 발휘하며 꼭 이기려고 하며 이익이 발생되면 실속을 챙긴다.

대인관계가 원만한 것 같으면서도 속으로 상대를 무시하고 윗사람을 존경하지만 아랫사람에게는 명령적이며 양보가 없다.
겁재가 많으면 이중인격자이며 이기주의며 비난과 오해가 자주 발생한다.
많아서 양인(兩刃)과 같이 있으면 독(毒)한 성격을 숨기고 부드러운 것처럼 남에게 접근하며 극난 극복을 잘하므로 추진력이 대단하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

지지(地支)에 있으면 강제성이 동원(動員) 되는 것 같으며 천간(天干)에 있으면 항상 사기성이 많으며 생각하는 것을 현금으로 교환한다.
겁재는 천간(天干)에 있는 것은 생각이고 말 뿐이지만 흥하면 공갈 협박이고 지지(地支)에 있으면 공격성이라서 행동에 문제가 있다. 공간적으로 보면 산만(散漫)하고 숨기려고 한다.

겁재란 적게 주고 많이 받고자하는 것이다.
비견처럼 똑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많이 가지려는 욕심이 강하고 그로 인하여 많은 손해를 당한다고 본다.
겁재의 특성은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속으로는 겁재가 많이 가지려

는 욕심을 낸다. 그래서 부정성이 강하다.

일주가 약하고 합으로 이루어지면 가지려는 욕심이 많을 것이고 형(刑)충(沖)파(破)해(害)가 많으면 손실이 더욱 만을 것이다.

용고집으로 노력을 많이 한다. 하지만 상부상조나 공동사업에는 어렵고 독단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대안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피해의식이 강하다.

또한 양인으로 이루어지면 더욱 심하고 신강하면 자존심이 강하여 굽히려는 생각을 하지 않으므로 많은 수행이 필요하다.

겁재는 정재를 극하므로 정재는 처(妻)성 이라서 처가 힘이 든다고 본다.

[출처] 겁재 | 작성자 윤하